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12.2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69.75원 (-0.85원)

KOSPI

3,920.37 (-6.22, -0.16%)

KOSDAQ

922.38 (+9.71, +1.06%)

국고채 10년 금리

3.387 (+0.043%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 | | |
|-----------------|--|
| 글로벌 ETF Weekly |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지수 방법론의 빈틈 채우기 [박승진] |
| 자산배분의 창(窓) | 영국 가을 예산, 숨겨진 긴축 찾기 숙제 [이영주] |
| DIN(Doo It Now) | 하이브리드 전환(JIT+JIC) 전략으로 바라본 구글과 코스닥 [김두언] |
| 신흥국 전략 | 인도 2/4분기 GDP 8.2% 서프라이즈 [김근아] |

기업분석

- | | |
|-------|--------------------------|
| 현대무벡스 | 실적 저변 확대와 신규 기회 포착 [한유건] |
|-------|--------------------------|

산업분석

- | | |
|-----|---|
| 자동차 | 미국 내 HEV 신차 투입과 인도/유럽 내 판매 회복이 주가의 동인 [송선재] |
| 에너지 | 캐나다의 원유 수출 확대, OSP 대세 하락 요인 [윤재성] |
| 운송 | 벌크선 운임 연내 최고점 경신 [안도현] |

Monthly & Weekly

- | | |
|-----|----------------------------------|
| 자동차 |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송선재, 김현수] |
| 건설 | 지방 전세 가격 상승 중 [김승준] |

글로벌리서치

- | | |
|--------------|-------------------------------|
|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 IEA 세계 에너지 전망(WEO) 2025 [김시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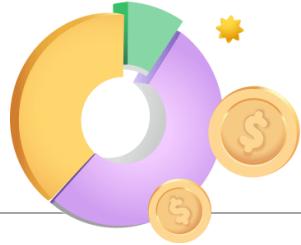
단기투자유망종목

- | | |
|--|--|
|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두산, 삼성에피스홀딩스, KCC, 파라다이스, 지역난방공사, 현대무벡스, 케이엠더블유
한중엔시에스 | |
|--|--|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5.12.1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종훈 jonghoonjeo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지수 방법론의 빈틈 채우기

정상화 과정 진행 중. 포트폴리오의 빈틈 채워 넣기: SMH, CHAT, URA/NLR, ZAP와 XBI, XLV, QDF의 활용

- **글로벌 수급:** 북미 지역 ETF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기조가 지속되었다. 북미 주식형 ETF 시장으로 2주 연속 +200억달러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북미 채권형 ETF 시장에는 +144.5억달러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다, 글로벌 선진국과 유럽 주식형 ETF 시장에 자금 유입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선진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2주만에 다시 자금이 유출되었다. 신흥국 ETF 시장의 경우 신흥 아시아 지역 주식형 ETF 시장으로 3주래 최대 규모의 매수세가 유입된 한편, 남미 주식형 ETF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금 유입 기조가 확인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상장 ETF 종목들의 주간 자금 유출입 흐름을 살펴보면, 변동성 요인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 가운데 지수형 ETF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모습이 재확인되었다. 더불어 반도체 섹터에서의 포지션 조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S&P500 지수 추종형 ETF들인 VOO와 IGV에 +55.2억달러가, IWM(Russell2000) +24.0억달러, IWF(Russell1000) +11.9억달러, RSP(S&P500 동일가중)로 +8.5억달러가 유입되었다. S&P500 지수를 추종하지만 더 높은 운용 보수가 적용되는 SPY (S&P500)에서는 -69.7억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대표 퀄리티 ETF인 QUA에서도 -37.4억달러가 빠져나갔다. 한편 시장에서 구글 TPU 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수 방법론 기준상 Alphabet을 편입하지 않고 있는 SMH의 비중 축소 움직임(-11.5억달러)이 나타났다. FOMC를 앞두고 12월의 금리인하 기대가 다시 형성된 가운데, 낮아진 금리 레벨에 대한 고민은 단기국채 ETF들인 SGOV와 SCH0, 중기국채 ETF인 SCHR에 대한 자금 유입으로 연결되었다. 대표 금 현물 ETF인 GLD와 GLDM, 은 현물 ETF인 SLV를 중심으로 투자자금 유입 흐름이 재개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다음주에 예정된 12월 FOMC(12/9~10)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섰다. 셧다운 여파로 뒤늦게 경제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정상 일정 하에서 FOMC 전에 확인되어야 했던 10월 주요 지표들과 11월 고용보고서는 최소 12월 중순이나 살펴볼 수 있을 예정이다. 최근의 상황들은 여전히 민간 데이터들을 통해 가능해 봄아하는 시기이다. 금주에는 11월 ISM 제조업 보고서(12/1)와 서비스업 보고서(12/3), 그리고 ADP 민간 고용(12/3) 데이터가 확인된다. PCE 지표도 오는 5일에 공개되겠지만, 원래는 10월말에 이미 확인되었어야 했던 데이터이다. 참고로 10월 고용과 CPI 지표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발표 계획 X), BLS(노동통계청)는 11월 고용보고서를 16일, 11월 CPI는 18일에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모두 12월 FOMC가 마무리된 이후의 일정들이 되겠다.
- **경제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담과 편더멘털 퀄리티 훼손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주거 부문이 근원 물가를, 에너지 부문이 헤드라인 물가를 누르고 있으나, 관세의 가격 전가 영향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할인행사에 민감한 가계 소비와 경제활동 참가인구 증가 현상은 소득의 불안정성과 맞닿아 있다. 불확실성의 공존 가운데, 연준이 만들어가는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점차 편더멘털(고용/소비) 퀄리티 쪽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뉴욕시장 선거 패배 직후에 보았던 것(식품관세 면제)처럼 인플레이션이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 무역협상들을 통해 이미 얻어낸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년 중간선거를 위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전환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속도의 관점에서는 선제적 대응보다 확인과 조치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전반적인 정책 강도를 조절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전망이다.
- 구글의 Gemini 3.0과 TPU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AI 버블론 관련 우려가 일부 완화된 상황 가운데, ETF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부 세부 조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중장기 관점에서 SMH(반도체), ZAP(전력), URA/NLR(원전) 등 병목현상 발생 영역들의 우선순위 설정을 유지하면서, 업종 분류상 반도체 섹터 ETF에 편입되지 않는 Alphabet은 MAGS나 CHAT 등의 ETF들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 연말의 수급 변수와 편더멘털 약화 기조 하에 기술 기반의 수요 창출이 가능한 XBI(바이오텍), XLV(헬스케어), QDF(퀄리티배당), BTAL(변동성 통수)와 같은 ETF들도 시야에 놓아두는 투자전략을 제시한다.

2025년 12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염려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산배분의 창(窓)

영국 가을 예산, 숨겨진 긴축 찾기 숙제

영국은 긴축이 필요하지만, 이번 예산에서 ‘당장의 긴축’은 보이지 않았다.

영국은 중기적으로 확실한 재정 긴축이 필요한 구조에 놓여 있다. 높은 부채 부담, 향후 3년간 매년 300bn 파운드 수준으로 유지되는 대규모 길트 (Gilt) 발행, 그리고 NHS·지방정부 등 핵심 공공서비스의 누적된 압력이 모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가을 예산 (Autumn Budget)은 즉각적인 긴축을 택하지 않았다.

정치·경제적 여건상 지금 당장 지출을 크게 줄이거나 세율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요 재정 조정 수단을 향후 몇 년 뒤로 배치하는 후행형 구조 (Back-loaded)를 취했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충격은 당장 피한다”는 이 구성은 시장 입장에서 단기 리스크를 누그러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길트 금리와 파운드 환율의 안정에 기여했다.

2026년은 ‘겉으로만 긴축’. 실질적 조정보다는 기계적 개선

후행형 예산 구조는 2026년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지출을 명목상 줄이진 않지만, 증가 속도를 1.8%로 낮춰 확장을 억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소득세 기준선을 2028년까지 동결한 상태에서 임금 상승이 이어지면, 과표 구간을 자동으로 초과하게 되어 세율 인상이 없어도 세수가 증가하는 브레이크 크리프 (bracket creep) 효과가 작동한다. 더불어 공공부문 임금 정상화와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른 자동 안정화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PSNB (Public Sector Net Borrowing, 공공순차입)는 2025년 4.5%에서 2026년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개혁에 의한 긴축이 아니라, 숫자상 개선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계적 효과에 가깝다. 핵심 증세 조치들은 대부분 2028~2030년으로 미뤄져 2026년의 개선은 보여주기 성격의 ‘겉긴축’일 뿐이며, 실질적 긴축은 여전히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다.

통화정책에는 중립: BOE 기준 경로 유지, 금리 인하 전망도 그대로

이번 예산은 영란은행 (BoE)의 통화정책 경로를 흔들 필요가 없게 만드는 중립적 구성이기도 하다. 재정이 당장 긴축으로 급변하지도 않고, 반대로 확장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의 충돌이 거의 없다. 여기에 에너지 비용 하락과 임금·물가 안정 흐름이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및 내년도 두 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즉, 재정정책이 통화정책 경로를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기존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셈이다.

단기 안정은 되돌림. 자산배분은 중기적으로 보수적 드레이션 전략 유효

예산 발표 이후 길트 금리가 하락한 것은 구조적 신뢰 회복 때문이 아니라,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단기 되돌림 성격이 강하다. 중기적으로 보면 재정 부담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 향후 3년간 총 300bn 파운드 수준의 길트 발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7~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선임연구원 하영민 hyeongmin.ha@hanafn.com

2030년 부처 예산 증가율은 연 0.6%에 불과해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 공공서비스가 이미 과부하 상태인 만큼 이 시기 중 어느 지점에서든 추가 지출 압력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번 예산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소규모 세수 수단 (부동산세, 연금 과세 조정 등)이 이미 대부분 소진된 상태라는 점이다. 결국, 이후에는 소득세·VAT·국가보험 (NI) 등 대형 세목을 손대는 중세 논의가 불가피하게 재부상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단기 부담을 피한 덕분에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했지만, 중기 재정 신뢰는 오히려 더 불투명해진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PSNB 개선 착시와 재정 충격 회피 덕분에 길트 금리의 안정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대규모 길트 발행 유지, APF (자산매입기구) 매각, 발행 만기 단기화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금리 변동성과 공급 부담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산배분 측면에서는 중기 드레이션에 대해 보다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유효하다.

Equity

2025년 12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하이브리드 전환(JIT+JIC) 전략으로 바라본 구글과 코스닥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 연초 코스닥 시장은 강한 시세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7년 전 (2018) 대책의 학습효과를 반영한 이번 활성화 방안은 ‘선별적 정화’와 ‘대규모 자금 버퍼’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환 (JIT → JIT+JIC)의 완성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장에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코스피 역시 엔비디아 AI 밸류체인(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견조한 상승세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코스피/코스닥 상대강도가 뚜렷하게 하락했던 세 시기(08년, 14년, 22년)를 복기해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를 앞서는 국면에서 강세를 나타낸 섹터는 제약/바이오, 조선, 화장품, 상사/자본재 및 기계 등이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 팬데믹 → 반도체 공급망 위기 → 홍해 사태로 이어지는 연이은 충격은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효율성의 정점인 Just-in-Time(JIT)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많은 선도 기업들이 이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미리 여유를 확보하는 Just-in-Case(JIC) 요소를 적극 도입하며, 궁극적으로 JIT+JIC 하이브리드 모델로의 체질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JIT은 철저한 효율성을 추구한다. 필요 시점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재고 비용을 극도로 억제하고, 실시간 수요에 최적화된 운영을 가능케 한다. 토요타 생산방식이 그 전형이다. JIC는 범용성과 회복 탄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불확실성에 대비해 안전재고, 공급처 다변화 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단절이나 돌발 변수에도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단점은 명확한 자본·비용 부담이다. 이러한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의 맥락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부각된 주요 이슈들 역시 동일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과거의 접근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최근 불거진 첫째 이슈는 구글의 7세대 텐서 처리 장치 TPU v7 Ironwood의 등장이다. 해당 칩은 이미 Gemini 3.0 훈련에 전면 투입되었으며, 메타가 2027년부터 본격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엔비디아 독주 시대의 종언”이라는 담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설계)·브로드컴(제조) 컨소시엄이 선보인 이 칩은 나스닥 지수 상승의 주된 동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동반 하락하며 연초 중국 DeepSeek 등장 이후 처음으로 나스닥과 엔비디아의 디커플링 현상이 관측되었다.

시장의 1차적 해석은 “AI 칩 가격 하락 → 엔비디아 마진 압박”에 머물렀지만, 보다 본질적인 시사점은 따로 있다. TPU는 GPU는 결국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필수적으로 소모한다는 점에서, 경쟁 구도는 “엔비디아 vs 구글”이 아니라 “HBM을 쥐고 있는 한국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들로 재편되고 있다.



국내외 주식사장 김두언 kimdooun@hanafn.com

RA 안범수 beomssoahn@hanafn.com

JIT+JIC 하이브리드 패러다임 관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엔비디아의 전략적 행보 자체다. 젠슨 황 CEO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AI Factory 개념(모델 설계부터 학습/추론/운영체 제까지)은 과잉 투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JIC형 대규모 선제 투자를 통해 경쟁자들의 추격을 원천봉쇄하려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결국 HBM 수요의 장기적·구조적 확대를 예고하며, HBM 공급망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6년 여전히 반도체 주도주를 주목할 이유이다.

둘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다. 4천피 안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코스닥 상대강도(RS)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11/4,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단순한 시장 부양책을 넘어 자본시장의 구조적 재편을 목표로 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코스닥이 대형주의 코스피 이전으로 ‘2부 리그’화되고, 작전주·부실 기업 문제로 투자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7년 만에 등장하는 이 패키지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대책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학습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핵심은 효율 극대화인 JIT 중심에서 벗어나, JIT+JIC 하이브리드 전략으로의 전면적 전환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총 167조 원(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 증권사 모험자본 17조 원)이라는 압도적 규모의 자금과 연기금 코스닥 비중 5% 목표는 외부 충격에도 시장이 붕괴하지 않도록 설계된 국가적 방화벽이며, 시총 150억 원 미만 자동 퇴출 및 2심제 심사 단축은 부실을 즉시 배출하는 자동 정화 메커니즘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특례상장 문턱을 추가 낮춘 것은 혁신 기업의 원활한 진입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천스닥(지수 1,000포인트)’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강력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2018년 대책이 성장에 치우쳐 바이오 베일과 그 이후의 장기 조정을 초래했다면, 2025년 대책은 성장과 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JIC 중심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착안된 것이다. 이는 작금의 금리 인하 지연 혹은 금리 인상 우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기에도 코스닥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상승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연말연초 코스닥 시장은 2018년과는 다른 질적 차원의 강한 시세 국면으로 진입할 개연성이 크다([11/24, 2026년 국내외 시황 연간전망 초주식시대](#)). 정화가 선행된 성장 주는 물론, 글로벌 수주 회복 사이클에 있는 조선, 화장품, 제약/바이오, 상사/자본재 섹터가 과거 상대강도 하락 국면(2008년, 2014년, 2022년)과 동일한 패턴으로 알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 AI 밸류체인 호황에 힘입은 코스피의 동반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2026년은 한국 증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원년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초주식시대이다.

2025년 12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인도 2/4분기 GDP 8.2% 서프라이즈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FY2026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을 8.2%로 서프라이즈 기록

인도 FY2026년 2/4분기(2025년 7~9월) 실질 GDP 성장률이 YoY +8.2%를 기록하며 컨센서스(+7.3%)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민간소비가 YoY +7.9% 증가했고, 고정투자(+7.3%)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반면 정부지출은 YoY -2.7%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9.1%)과 서비스업(+9.2%)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체 성장률을 견인했다.

이번 GDP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비 회복의 가시성이다. 인도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내수 부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올해 들어 누적 100bp 기준금리 인하와 중·저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세제 조정을 추진했으며, 9월 22일부터는 GST(상품 및 서비스세) 개혁도 본격 시행했다. GST 개혁은 역대 부양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요 촉진이 기대되는 조치로 평가되었던 만큼, 개혁 이후 소비 회복세가 실제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다. 비록 분기 중 GST 2.0이 적용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세율 인하 기대감과 가격 조정 효과가 소비심리를 선제적으로 개선한 가운데 축제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2/4분기 민간소비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인도가 대외 약재 속에서도 내수 중심의 성장 전환이 가능함을 입증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한편, 8월부터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수출이 비교적 견조했던 점도 눈에 띠는데, 이는 관세 부과 이전에 기업들이 물량을 선출하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선출하 효과는 일시적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분기에는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성이 있다. 소비 확대에 대응한 기업들의 생산 증가와 선출하 물량이 겹치면서 제조업 생산 또한 +9%대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향후 수출이 감소할 경우 제조업 생산의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수요가 얼마나 견조하게 유지되는지가 제조업 생산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시사점도 분명하다. 성장률 발표 이전에는 12월 통화정책회의(3~5일)에서 25bp 추가 인하 가능성성이 높게 거론됐으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성장률이 확인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약화된 상황이다. 당분간은 현 수준 금리를 유지하면서 소비·물가·환율 등 주요 거시지표 흐름을 모니터링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12월 회의는 RBI가 금번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향후 정책 톤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확인하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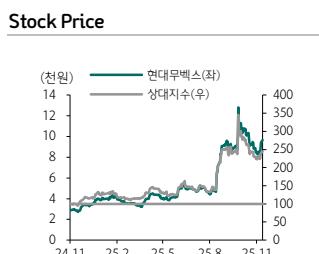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Not Rated

현재주가(12.01) 9,66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922.38
52주 최고/최저(원)	12,800/2,735
시가총액(억원)	1,075.9
시가총액비중(%)	0.22
발행주식수(천주)	111,376.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443.0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66.2
외국인지분율(%)	1.71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일렉베이티 외 4 인	53.22
에이치엠엠	13.01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억원)	4,273	5,150
영업이익(억원)	275	373
순이익(억원)	201	310
EPS(원)	176	278
BPS(원)	1,585	1,789



투자지표	(억원, %, 배, 원)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2,401	2,105	2,678	3,414
영업이익	154	122	41	246
세전이익	117	125	46	342
순이익	81	92	42	269
EPS	79	83	36	229
증감율	(31.3)	5.1	(56.6)	536.1
PER	39.8	36.6	94.2	14.8
PBR	2.6	2.3	2.5	2.2
EV/EBITDA	0.0	1.5	5.4	0.0
ROE	6.4	6.0	2.6	15.6
BPS	1,206	1,344	1,367	1,554
DPS	30	30	30	50



Analyst 한우건 hyg0619@hanafn.com
RA 손호성 hss93@hanafn.com

2025년 12월 02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현대무벡스 (319400)

실적 저변 확대와 신규 기회 포착

물류자동화·로보틱스 선도 기업

현대무벡스는 2016년 설립된 스마트 물류·인프라 자동화 기업이다. 제작, 설치, 메인테넌스, SI 기술을 모두 내재화하여 물류자동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물류/유통, 제조(자동차, 타이어, 석유화학, F&B 등) 산업 전방위적으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타이어(23년, 1,077억원), 2차전지(23년, 1,000억원), ESS(24년, 777억원), 가전(25년, 635억원), 육가공(25년, 100억원), K-Beauty, 화장품(25년, 559억원) 등의 물류자동화 수주로 유의미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신규 영역으로의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R&D 역량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AGV 제품 라인업을 지속 개발/확대하여 로보틱스 적용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고객사 니즈를 컨설팅 단계부터 대응하며 맞춤형 물류자동화 혁신을 선도 중이다. 인건비와 인력부족으로 업무 및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자동화 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음에 따라, 동사가 선도하는 물류자동화 확산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한다.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 기대, 성장세 유지될 전망

현대무벡스의 핵심 투자포인트는 1) 수주잔고의 회복 + 2) 해외 진출이 될 전망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수주잔고의 경우 3,631억원(-25% YoY)을 기록했다. 다만, 빠르면 연내 혹은 2026년 1분기 약 4,000억원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025년 대외 불확실성으로 이 연되었던 고객사 투자가 집행되고, 4분기 수주가 집중되는 기존 사업의 계절성에 반영했을 때 2,000억원 수준의 수주가 기간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다수의 소규모 및 대규모 수주 건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K-Beauty, 가전 산업향 수주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고객사 한국타이어의 미국/유럽 공장물류자동화의 90% 이상을 담당했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유럽 탑티어 타이어 업체의 글로벌 진출 건의 논의도 진행 중으로 파악되며 때문에 가파른 수주잔고 회복을 넘어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해외 고객사 수주 건이 확정될 경우 동사의 캡티브 물량 중심의 성장이 아닌 대외영업 기반의 사업 확장 전략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수주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 사업 확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사업 확장 및 유지보수 매출 확대로 점진적 수익성 개선 전망

현대무벡스 2025년 실적은 매출액 4,058억원(+18.9 %YoY), 영업이익 256억원(+4.1% YoY, OPM 6.3%)을 기록할 전망이다. 23년, 24년 대규모 수주로 확보로 인해 3분기까지 이어져온 실적 성장이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수주와 공정 진행률에 따른 매출 반영이 4분기 계절성 영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익성의 경우 물류자동화 매출 볼륨 확대에 따른 메인테넌스 매출 성장으로 인한 믹스 개선, 해외 매출 발생으로 인한 수익성 제고, PSD 도어 부문의 양질의 실적 성장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세가 예상되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5년 11월)

미국 내 HEV 신차 투입과 인도/유럽 내 판매 회복이 주가의 동인 | 2025.12.02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Key Insight: 관세 이슈의 종료. 이제는 Back To The Fundamental 국면

판매동향

- 현대차/기아의 11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35.0만대/26.2만대로 -2%/-1% (YoY)
- 합산 글로벌 도매판매는 61.2만대(-1.8% (YoY)). 내수/해외 판매가 각각 -3%/-2% (YoY)
- 합산 도매판매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부진. 다만, 하락폭은 다소 축소
- 11월 누적 글로벌 도매판매를 보면, 현대차/기아/합산이 각각 380.7만대(-0%)/289.9만대(+2%)/670.6만대(+1%)

달성을률

- 현대차/기아의 2025년 도매판매 목표는 1%/4% 증가한 417.4만대/321.6만대
- 11월 누적으로 계절성을 감안한 달성을률은 각각 91.2%/90.1%
- 이는 과거 3년 평균 달성을률 90.9%/91.3% 대비 상회/하회한 수준. 6년 평균 달성을률 90.9%/91.6% 대비로도 상회/하회한 수준
- 2025년 목표 자체가 낮지만, 11월까지의 누적 판매는 현대차가 사업계획 범위 안, 기아가 소폭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가

- 현대차/기아의 11월 및 11월 누적 합산 도매판매는 -2%/+1% (YoY) 변동하면서 물량 저성장 기조를 재확인
- 완성차 주가는 관세율 인하 및 미국 내 점유율 상승 등을 기반으로 반등 후 횡보 중
- 주가는 P/E 5배 후반의 낮은 Valuation과 4% 후반~6% 초반까지의 양호한 배당수익률에서 거래 중. 즉, 가격적 메릿은 충분
-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는 친환경차 신차 성과 및 미국외 지역에서의 판매 회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로 진입 중
- 최근 몇 년 간 미국에서의 성장 지속은 고무적이나, 미국에서만 성장하는 것은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 미국외 지역에서의 회복은 인도/유럽에서 찾아야 할 것. 인도는 시장 회복과 신차 투입, 유럽은 친환경차 신차 출시가 중요
- 두 시장에서의 판매 성과와 미국 내 HEV 신차 투입이 내년 상반기까지의 주가 상승을 자극하는 핵심 동인이 될 것

현대차: 11월 도매판매 -2.4% (YoY). 내수/해외 -3%/-2%. 11월 누적은 -0%

도매판매

- 11월 글로벌 도매판매 35.0만대(-2.4% (YoY))
- 내수 6.1만대(-3% (YoY))/해외 28.8만대(-2% (YoY)). 해외판매 비중 82.5%(+0.2%p)
- 내수에서 승용 1.8만대(+1%), RV 2.3만대(-2%), 소상 0.7만대(-25%), 대형 0.2만대(-12%), 제네시스 1.1만대(+5%, 비중 18.8%)
- 내수 승용: 아반떼/쏘나타/아이오닉6/그랜저 +0%/-11%/-67%/+29% (YoY)
- 내수 RV: 캐스퍼/코나 -39%/+35% (YoY). 투싼/싼타페/팰리세이드 -4%/-48%/+125% (YoY)
- 내수 제네시스: G80/GV70/GV80 +7%/+20%/-5% (YoY)
- 내수 친환경차: 2.1만대(+6%). 친환경차 비중 34.2%(+2.9%p). EV/HEV 각각 0.3만대/1.7만대(-41%/+21%)
- 내수 전기차: 신형 아이오닉9/아이오닉6 484대/244대 기여, 아이오닉5 -45% (YoY)
- 11월 누적 글로벌/내수/해외 판매는 각각 380.7만대/65.0만대/315.7만대 (-0%/+1%/-0% (YoY))

기아: 11월 도매판매 -0.8% (YoY). 내수/해외 -1%/-1%. 11월 누적은 +2%

도매판매

- 11월 글로벌 도매판매 26.2만대(-0.8% (YoY))
- 내수 4.8만대(-1% (YoY))/ 해외 21.4만대(-1% (YoY)). 해외판매 비중 81.7%(-0.0%p)
- 내수에서 승용 1.3만대(-5%), RV 3.1만대(-2%), 상용 0.4만대(+22%)
- 내수 승용: 모닝/레이 +3%/-11%. K5/K8 +45%/-41%
- 내수 RV: 니로 +19%. 셀토스/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5%/+62%/-4%/-29%. 신형 타스만 592대 기여
- 내수 친환경차: 2.0만대(-9%). 친환경차 비중 42.3%(-3.8%p). EV/HEV 각각 0.4만대/1.7만대(-19%/-6%)
- 내수 전기차: 신형 EV4 338대 기여, EV3 684대, EV6/EV9 -49%/+29%
- 11월 누적 글로벌/내수/해외 판매는 각각 289.9만대/50.3만대/239.5만대 (+2%/+2%/+2% (YoY))

2025년 12월 02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12월 01일

S-Oil(010950)

BUY | TP 100,000원 | CP 77,900원

SK이노베이션(096770)

Neutral | TP 150,000원 | CP 114,600원

에너지

캐나다의 원유 수출 확대, OSP 대세 하락 요인

캐나다의 에너지 수출 다변화 의지: TMX 파이프라인 확대

캐나다는 TMX(Trans Mountain Expansion)를 통해 기존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앨버타 에드먼턴~벤쿠버 버나비)을 따라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확장했다. TMX는 2024년 5월 가동되었고, 이로 인해 원유 수송 능력은 기존 30만b/d에서 89만b/d로 약 3배 가량 늘어났다. TMX PJ의 추진 배경은 캐나다 원유가 대부분 미국 중서부/텍사스만으로 주로 수출되면서 겪는 Max 40\$/bbl에 달하는 할인 판매 및 관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아시아 시장에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수출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벤쿠버와 아시아는 태평양을 직접 마주하고 있어, 텍사스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치는 것보다 20~30일 가량의 운송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2025년 상반기 일부 아시아 정유업체는 캐나다산 원유를 WTI 대비 5\$/bbl 할인된 가격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아시아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캐나다 초중질유를 사용하면서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내해 볼 만한 선택이기에 상호 간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 참고로, 2024년 5월부터 1년 간 벤쿠버 항을 통한 캐나다 원유 수출의 48%는 중국/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향했다.

11/27일 캐나다의 추가 파이프라인 증설 계획 발표

11/27일 캐나다 연방 정부와 앨버타 주 정부는 에너지 협력 및 원유 수출을 위한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 협약을 통해 캐나다를 에너지 초강대국(Energy Superpower)로 만들고, 미국 의존도를 축소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앨버타의 원유를 태평양 연안 항구를 통해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는 TM+TMX 89만b/d와 별개의 프로젝트로 100만b/d 원유 수송이 목표로 완공 시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늘어나는 셈이다. 신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2026년 7/1일까지 신청 절차가 확정되고, 2030년 이후 완공과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시아 OSP 대세 하락 사이클 진입 예상. 한국 정유사의 원가 절감 요인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사우디의 아시아향 OSP는 Arab Light 기준 2023~25년 2~3\$/bbl 수준이었다. 이는 과거 2011~13년 WTI 100\$/bbl 이상에서 형성된 프리미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 WTI 60\$/bbl 대비 과도하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OPEC+의 대규모 감산 영향이며, 그간 한국 정유업체의 과도한 원가 부담과 부진한 실적의 원인이 된 바 있다. 하지만, OPEC+도 이제 감산 완화를 통한 M/S 확대로 스탠스가 변화되었다. 게다가, 캐나다 원유의 아시아향 유입이 203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M/S 확대를 위해서는 사우디는 향후 아시아향 OSP를 지속적으로 하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로, 2026년 1월 OSP(Arab Light)는 MoM -0.3~-0.4\$/bbl 인하된 0.6~0.7\$/bbl로 5년 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유사의 원가 절감 스토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Top Pick으로 S-Oil을 지속 강조한다.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2025년 12월 2일 | 산업분석

Neutral

운송

벌크선 운임 연내 최고점 경신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12월 1일

팬오션(028670)

BUY | TP 4,800원 | CP 3,940원

BDI 2,560pt, Capesize가 견인

최근 BDI가 2,560pt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대부분 Capesize 운임 상승에서 기인했는데, Capesize 운임지수는 연초 대비 236% 상승하며 BDI(연초 대비 +149%) 기타 선형 운임 상승률을 압도했다. Panamax/Supramax/Handy 선형의 운임지수는 연초 대비 각각 96%/60%/49% 상승에 그쳤다. 대형선 위주의 운임 상승이 나타나는 주요 이유는 중국 철광석 수입량이 하반기 YoY 상승 반전하며 Capesize 선형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석탄의 해상 물동량은 감소하고 있다. 석탄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인도의 석탄 수입량은 연중 각각 15%/3% (YoY) 감소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석탄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중형선 미만 선형의 운임 상승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내년 벌크선 시황도 대형선 위주 맑음

2026년도 선형별 운임 편차가 유지될 전망이다. 철광석은 볼륨보다는 톤마일 증가세가 더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프리카 시만두 광산 개발로 아프리카의 철광석 수출량이 2026년 26% (YoY) 증가할 전망이고, 기존 철광석 수출 루트(호주-중국) 대비 항차기간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연중으로도 Capesize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반면 석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석탄 수요가 2026년 이후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Panamax 미만 선형의 운임 상승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벌크 물동량(톤마일) 증가율은 +2% (YoY)이고, 대형선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크선사도 주주환원 확대 흐름에 올라탈 필요 있다

하반기 이후 BDI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벌크선사의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는데, 축적된 현금성 자산과 높아진 실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확대 흐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벌크선사인 팬오션/대한해운 모두 코로나19 이후 BDI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과 벌크선 발주 감소가 맞물리면서 사내 유보 현금이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주주환원에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팬오션은 당기순이익의 15~25%를 배당 중인데, 2024년 배당성향(일회성 비경상손익 제외)은 21%였다. 팬오션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연간 7,000억원 이상 전망)을 감안하면 추가 주주환원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한해운은 그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563억원, 현금성자산은 3,700억원으로 배당을 시행할 충분한 이익체력과 재무구조가 갖춰졌기 때문에 저평가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배당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2025년 10월 EV +9%, HEV +5%. 미국 EV 급감. 선수요 종료 영향 | 2025.12.2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2차전지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전기차: 10월 글로벌 전기차 증가율은 +9% (YoY).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은 중국 56.9%, 유럽 33.9%, 미국 7.3%, 한국 9.5%

글로벌

- 10월 192.2만대(+9% (YoY)). BEV/PHEV 127.7만대/64.5만대(+19%/-8%). 10월 누적 1,638.0만대(+24% (YoY))

미국

- 10월 9.3만대(-31% (YoY), 비중 7.3%). BEV/PHEV 7.3만대/2.0만대(-33%/-25%). 10월 누적 141.2만대(+12% (YoY), 비중 10.5%)
- 10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모델Y/모델3로 각각 2.10만대/1.59만대

중국

- 10월 127.6만대(+2% (YoY), 비중 56.9%). BEV/PHEV 80.6만대/47.0만대(+19%/-17%). 10월 누적 1,020.7만대(+22% (YoY), 비중 53.0%)
- 10월 판매대수 1위/2위는 Wuling의 Hongguang MINI/Geely의 Star Wish로 각각 6.15만대/4.42만대

유럽

- 10월 37.0만대(+37% (YoY), 비중 33.9%). BEV/PHEV 24.7만대/12.3만대(+35%/+41%). 10월 누적 335.1만대(+33% (YoY), 비중 30.4%)
- 10월 판매대수 1위/2위는 스코다의 ENYAQ/폭스바겐의 ID.7로 각각 0.7만대/0.7만대

한국

- 10월 1.2만대(+33% (YoY), 비중 9.5%). BEV/PHEV 1.2만대/0만대, FCEV 744대. 10월 누적 11.6만대(+47% (YoY), 비중 8.1%)

하이브리드차: 10월 글로벌 HEV 증가율은 +5% (YoY). 지역별 HEV 침투율은 유럽 30.5%, 일본 51.7%, 미국 14.2%, 한국 25.0%

글로벌

- 10월 89.4만대(+5% (YoY)), 유럽 33.3만대(+9%), 일본 17.0만대(-6%), 미국 18.0만대(+18%), 한국 3.2만대(-19%)
- 10월 누적 895.0만대(+14% (YoY)), 유럽 342.0만대(+14%), 일본 169.9만대(-1%), 미국 180.4만대(+41%), 한국 36.8만대(+20%)

현대차/기아: 10월 HMG의 친환경차/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8%/+4% (YoY), 전기차 비중은 7.5%,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4%

친환경차

- 10월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소매판매는 13.06만대(+8% (YoY), 비중 21.6%). 현대차/기아 각각 6.96만대(+1%)/6.10만대(+17%), 이 중 HEV 소매판매는 8.54만대(+10%, 비중 14.1%), 현대차/기아 4.86만대(+6%)/3.68만대(+16%)
- 10월 누적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소매판매는 134.70만대(+18% (YoY), 비중 22.6%). HEV 소매판매는 83.9만대(+20%, 비중 14.1%)

전기차

- 10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소매판매는 4.52만대(+4% (YoY), 비중 7.5%). BEV/PHEV 3.84만대/0.68만대(+9%/-18% (YoY), 비중 6.3%/1.1%). 현대차/기아 각각 2.4만대(+18%)/2.1만대(-9%). 10월 누적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소매판매는 50.79만대(+15%, 비중 8.5%)
- 10월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은 현대차/기아 합산 2.4%(-0.8%p (MoM), -0.1%p (YoY)). 현대차/기아 각각 1.1%/1.3%(-0.5%p/-0.3%p (MoM), -0.2%p/+0.1%p (YoY)). 10월 누적 현대차/기아 합산 점유율은 3.1%
- 전기차 전용 모델들의 출하 동향: (현대차) 아이오닉5 출하 3,569대(내수/수출 1,530대/2,008대), 소매판매 2,859대(내수/유럽/미국 1,530대/1,279대/50대). 아이오닉6 출하 819대, 소매판매 3,012대. 아이오닉9 출하 1,955대. 제네시스 GV60 출하 252대(내수/수출 150대/102대). 넥쏘 출하 2대. (기아) EV6 출하 1,123대(내수/수출 747대/376대), 소매판매 2,631대(내수/유럽/미국 747대/1,107대/508대). EV5 출하 739대, 소매 1,888대. EV9 출하 990대(내수/수출 144대/846대), 소매판매 1,904대(내수/유럽/미국 144대/637대/666대). EV3 출하 3,237대. EV4 출하 1,068대

2차전지: 글로벌 10월 배터리 출하 +21%(YoY), CATL 1위

출하량

- 10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21%(YoY) 증가한 107.4GWh를 기록. 업체별 출하량은 CATL 42.3GWh(+25%), BYD 18.5GWh(+11%), CALB 6.8GWh(+77%), LGES 6.7GWh(-8%), SK on 3.1GWh(-16%), Panasonic 3.1GWh(-2%), 삼성SDI 2.1GWh(-3%)
- 10월 LFP 배터리 침투율은 글로벌 56.5%로 전월 대비 +3.4%p 상승

원자료

- 주 원자료 가격 동향: 리튬/니켈/코발트/망간/구리/알루미늄/LiPF6 가격은 10월 +3%/-0%/+27%/-1%/+7%/+5%/+38%(MoM), 11월 +15%/-3%/+13%/-0%/+1%/+1%/+92%(MoM)

시사점 및 의견: 국내 셀 메이커 3사 유럽 합산 점유율 31%로 연중 최저치 기록

2차전지

- 2025년 10월 국내 3사(LGES, 삼성SDI, SK on)의 유럽 출하량은 각각 3.2GWh(YoY +9%), 1.1GWh(YoY +2%), 1.9GWh(YoY +3%)였으며, 합산 점유율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7%p 하락. 올해 가장 낮은 합산 점유율을 기록. 한편, 2025년 1~10월 누적 출하량은 각각 36.8GWh(YoY -3%), 10.5GWh(YoY -20%), 17.3GWh(YoY +37%)를 기록했으며, 합산 점유율은 35%로 전년 동기 대비 -11%p 감소해 점유율 하락세 지속. 같은 기간 유럽 시장 내 3사 합산 출하량은 64.6GWh로 전년 대비 +1% 증가하는데 그침.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전기차(BEV+PHEV) 누적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나, 국내 3사의 유럽 내 배터리 출하 점유율은 감소세. 다만, 긍정적인 점은 연초 대비 점유율이 더 하락하지 않고 방어되고 있다는 점. 3사 합산 점유율은 1월 34%, 4월 32%, 8월 37%, 10월 31%로 30%대 유지하고 있음. 유럽 시장 내 비중국산 배터리 조달 비중을 최소 30% 이상 유지하려는 니즈 있다고 판단. 한국 기업들이 30%대 점유율을 계속해서 방어해낸다면, 2026년부터는 전방 시장 성장률만큼의 낙수효과 누릴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유럽에서의 한국 셀 메이커 고정비 부담 완화 기대 가능. 다만, 향후 합산 점유율 30% 봉괴 시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잔존. 섹터에 대한 중립 의견 유지하되 트레이딩 관점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

지방 전세 가격 상승 중

건설 Weekly | 2025.12.02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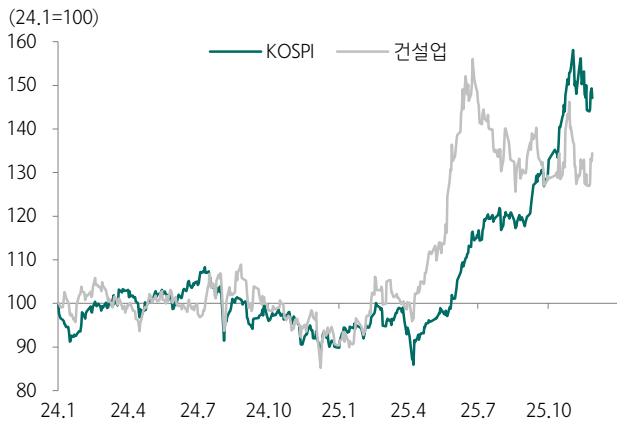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3.9%p 상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외인, 연기금이 모두 매수했다. 현대건설이 원전 이슈로 크게 상승했으며, 다른 건설주들도 1~2% 상승했다.
- 주요 지표로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5.8으로 하락했다(-0.1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1주 연속 상승했다(+0.06%), 전세가는 24주 연속 상승했다(+0.08%). 수도권 매매가는 39주 연속 상승(+0.10%), 전세가도 40주 연속 상승(+0.12%)했다. 서울 매매가격은 44주 연속 상승(+0.18%), 전세가는 41주 연속 상승(+0.15%)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은 모두 4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2%). 전세가격은 지방광역시 17주 연속 상승(+0.07%), 기타지방 13주 연속 상승했다(+0.05%). 광역시별로 인천(+0.02%), 부산(+0.03%), 울산(+0.11%), 광주(+0.01%)가 상승했으며, 대구(-0.04%)는 하락, 대전(0.00%)은 보합이었다. 전반적으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
- 청약홈에서의 청약은 7건(경남김해/창원, 경기성남/시흥/부천, 전북전주, 울산, 충남천안)이다. 성남복정과 전북전주에서 흥행한 반면, 울산과 경기시흥에서는 미달이 나타났다. 이번 주 1순위 청약은 13건(전남나주, 충남천안, 인천, 세종, 울산, 경기의왕/화성/김포/안양/부천, 제주)이다.
- 지방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광역시는 17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은 13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이번 주는 광역시별로 인천 +0.10%, 부산 +0.09%, 대구 +0.04%, 광주 +0.04%, 대전 +0.02%, 울산 +0.12%다. 기타지방에서는 세종 +0.30%, 진주 +0.20%, 서산 +0.20%, 김해 +0.12%, 남원 +0.12%, 전주 +0.12%, 안동 +0.10% 등이 상승했다. 지방이 무작정 하락하는 지역이 아니라, 수급 환경에 따라 가격이 상승(특히 주거비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연간전망의 키워드는 지방의 가격 상승이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혹은 턴어라운드)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면, 주택주를 사야 할 사이클의 초입에 있다고 본다. 내년 지방 상승을 전망하며, 지방의 전월세가격의 추이를 확인하며 투자 시점을 찾아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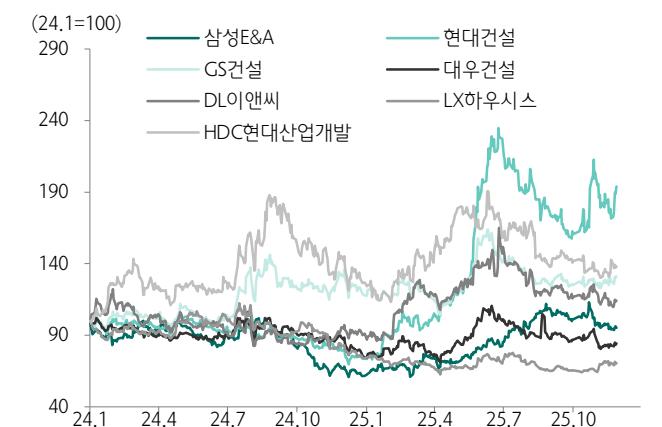
주간 건설업 주가차트

도표 1. KOSPI 및 건설섹터 수익률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건설업 커버리지 종목 주가차트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2025년 12월 1일 | 글로벌 리서치

산업 Issue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IEA 세계 에너지 전망(WEO) 2025

2035년 발전량 전망 전년대비 4% 상향

IEA 세계에너지전망(WEO) 2025의 핵심은 1) 2035년 전력 수요는 37,800 TWh로 현재 대비 +40%, 2) 재생에너지 비중은 CPS(보수적)와 STEPS(제안됐으나 채택되지 않은 정책 포함) 시나리오 모두 가속화되며 STEPS에서는 현재 약 33%에서 2035년 55%를 전망, 3) 전기화의 급속 진행 및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STEPS 기준 2035년 발전량은 전년도 전망치 대비 4% 상향조정이다. 2025년판 STEPS는 2024년판 대비 2035년 미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0% 낮게, EV는 60% 적게 수정했다. 반면 신흥국(중국 제외)에서는 EV 전망치를 20% 상향조정했다. 천연가스 소비 전망치 역시 2024년판 대비 350 bcm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중 4분의 3은 전력 생산용으로 주로 미국, 일본, 중동에서 발생하며 작년 예상보다 느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운송용 CNG와 선박용 LNG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신흥국 위주로 상승 전망

전기요금은 에너지 경제성을 가늠하는 핵심 요인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력망 인프라 확충, ESS 적용 확대로 전력시스템의 자본집약적 비용 구조 심화, 신규 부하 연결 등이 복합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을 이끈다. 대규모 LNG 공급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장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전기요금 상승을 완화하는 요인이나 상승 압박 요인을 모두 상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완만한 반면 신흥국은 전기 접근성과 가전 보급 확대로 증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주요 부품 공급망 병목으로 20%가 지연 위험

2025년 데이터센터 투자액은 약 5,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석유 공급 부문 투자액인 5,400억을 상회한다. 변압기, 케이블, 가스터빈과 핵심광물 등 부품 공급망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증설 규모의 약 20%가 지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평균 계통 연결은 1~3년이며 데이터센터 최대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최대 7년이 소요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계통 지연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균 7~10년 소요된다고 보도된 바 있다. 데이터센터 허브인 Dublin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계통연결이 2028년까지 중단된 상태다. STEPS 시나리오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증가분의 45%(400TWh)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주요 공급원이다. 미국과 중동에서는 천연가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STEPS 시나리오에서 데이터센터에 공급될 천연가스 발전량은 220TWh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2/1	100,500	100,800	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현대모비스 (012330.KS)	12/1	309,500	303,500	-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양산 일정 가시화된다면, 수혜가 가장 큰 종목으로 부각 가능관세 비용은 고객사들과의 협의 및 단가 인상으로 회수 기대
두산 (000150.KS)	12/1	876,000	833,000	-4.91%	<ul style="list-style-type: none">26년 AI 가속기향 하이엔드 CCL 공급으로 성장 가시성 확보하이엔드 내 반도체 패키지, 네트워크향 수요 회복세 지속
삼성에피스홀딩스 (0126Z0.KS)	12/1	429,000	398,000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위에 신약개발 역량 추가 구축 기대ADC·이중항체·펩타이드 관련된 플랫폼 기술확보 기대
KCC (002380.KS)	12/1	417,000	418,500	0.36%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 유기실리콘 반내권(Anti-Involution) 정책 시작으로 중국 DMC 가격 급등DMC 상승, 매출 비중 60%에 달하는 범용 및 중가 제품군의 직접적인 판가 상승 견인
파라다이스 (034230.KS)	12/1	17,050	18,040	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3Q25 Review 매출액 2,881억원(YoY +8.0%), 영업이익 395억원(YoY +9.0%) 기록호텔 인수 및 소프트 오픈을 통해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2/1	107,900	105,600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로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현대무브스 (319400.KQ)	12/1	9,410	9,660	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타이어 기업 중심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판단국내 기업향 에너지저장장치, 화장품, 가전 관련 물류 자동화 수주 기대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2/1	15,110	14,920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트럼프 600M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촉구에 주목, 2026년 대규모 투자 기대중국 부품 제재 강화, 오픈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 양호한 흐름 지속
한중엔시에스 (107640.KQ)	12/1	47,150	48,500	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북미 포함 ESS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ESS향 매출비중 80%까지 확대를 목표삼성SDI의 ESS솔루션 SBB1.5, SBB2.0 제품향 냉각시스템을 공동개발 및 단독 공급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55%	-0.39%p	+66.38%	+15.1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GC에너지 (005090.KS)	12/1	23,250	23,350	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년에는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 연료투입 매칭제로 REC 가중치 상향될 전망 전체적인 배출권 공급 축소와 수요 증가로 배출권 가격 상승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2/1	15,110	14,920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600M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촉구에 주목, 2026년 대규모 투자 기대 중국 부품 제재 강화, 오픈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 양호한 흐름 지속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1/17	105,200	105,600	0.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알테오젠 (196170.KQ)	11/17	554,000	542,000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하주사 전환에 대한 니즈가 투약 편의성 개선, 바이오시밀러 방어 등의 이유로 증가 중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유입 전망, 공장 증설에 따른 제품 수익 증가 기대
삼성E&A (028050.KS)	11/3	25,950	25,500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S 국가들(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가스 등의 프로젝트 참여 예정 26년 사우디 가스(Khafji, 20억달러), 카타르 화학(40억달러) 신규 수주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10/20	465,500	538,000	15.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0/13	210,500	250,000	18.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0/13	272,500	292,000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0/1	83,900	100,800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10/1	115,500	126,300	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줍여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원을 약 53% 수준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0/1	145,000	159,300	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S-Oil (010950.KS)	10/1	62,400	77,900	24.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9.79%	-4.44%p	+55.94%	+4.7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4,795	20.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6,880	2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750	2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6,790	7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프,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49.14	352.28	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2.40	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PAVE (미국 인프라 주식)	2025.11.124	38.07	48.54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4.08	1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11월 수출/입 (8.4%/1.2%, 10월 3.5%/-1.5%) ■ 유로존 11월 HCIB 제조업 PMI F (E 49.7P, 10월 50.0P) ■ 미국 11월 ISM 제조업지수 (E 49.0P, 10월 4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11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10월 2.4%/2.2%) ■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P (E --/--, 10월 2.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3분기 GDP P (E --, 2분기 1.7%) ■ 미국 11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 10월 5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10월 소매판매 (E --, 9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3분기 GDP F (E 1.4%, 2분기 1.5%) ■ 미국 12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 P (E --, 11월 5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J 우에다 총재 연설 					
12.7	12.8	12.9	12.10	12.11	12.12	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3분기 GDP F (E -1.8%, 2분기 2.2%) ■ 중국 11월 수출/입 (E --/--, 10월 -1.1%/1.0%) ■ 유로존 12월 센트릭스 투자기대지수 (E --, 11월 -7.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E --, 10월 98.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11월 실업률 (E --, 10월 2.6%) ■ 중국 11월 소비자물가 (E --, 10월 0.2%) ■ 중국 11월 생산자물가 (E --, 10월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월 기준금리 (E 3.75%, 10월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월 FOMC (~11) 	

주: 1) 갤호 안은 예상치(E), 전일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시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시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